

오미네산 여인금제 전통의 현대적 의미*

우정미**
azisai@dreamwiz.com

< 目次 >

- | | |
|------------------------|--------------------|
| 1. 들어가며 | 4.1 교단 |
| 2. 슈겐도 행장(行場)으로서의 오미네산 | 4.2 신자단체 코(講) |
| 3. 오미네산 여인금제와 해금운동 역사 | 4.3 전통숙박지 도로가와(洞川) |
| 4. 오미네산 여인금제 전통의 재해석 | 5. 마치며 |

主題語: 슈겐도(SHUGENDO), 행장(GYOUBA), 오미네산(OMINESAN), 여인금제(NYONINKINSE), 야코(YATKOU), 도로가와(DOROGAWA)

1. 들어가며

2004년 7월 ‘기이산지(紀伊山地)의 영장(靈場)과 참배길’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1) 이곳은 일본 와카야마현(和歌山縣)과 나라현(奈良縣), 미에현(三重縣)에 걸친 산악지대가 전통적인 종교의 성지로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끊어지지 않는 곳이다. 인간의 사고는 끊임없이 변하고, 세상의 중심은 신에서 인간으로 그리고 남녀로 변화한지 오래이다.

* 이 논문은 2007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KRF-2007-361-AM0015)

** 경상대학교 경남문화연구원 HK연구교수

1) <기이산지(紀伊山地)의 영장(靈場)과 참배길> 유네스코 등재과정

1978년 문화재청은 오쿠노호소미치(奥の細道), 중산로(中山路) 구마노 고도(熊野古道)를 역사의 길로 지정.

1996년 문화심의위원회에서 ‘역사의 길 백선’으로 선정.

2000년 교육위원회 내 세계문화유산등록추진위원회 설치. 이후 국가에서 세계유산에 어울리는 자산으로서 와카야마, 나라, 미에 3현에 걸친 지역을 대상으로 할 것과 3현의 협조를 강하게 요구.

2001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리스트에 기재

2003년 1월 말 세계문화유산등록추천서를 일본정부가 유네스코에 제출.

2004.7.1. 세계문화유산등록

이 중에 요시노·오미네(吉野·大峯)는 슈겐도(修験道) 종단에서 2000년은 엔노고자(役行者) 입적 1,300년에 해당되는 것을 계기로 국내외적으로 요시노·오미네 슈겐도와 요시노가 가지는 문화 역사 자연 가치를 재인식하고 싶은 염원으로 세계유산 등록을 추진하였다.

그럼에도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기이산지에 여성이 들어갈 수 없는 구역이 있다. 그것을 목인한 채로 세계문화 유산에 등재가 되었고, 일본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의 여성이 와도 들어 갈 수 없는 곳이 세계인이 보호해야 하는 자연유산으로 등재된 것이다. 왜 출입금지인가라는 단순한 의문이 이 논문의 출발점이다.

일본에서 전통적으로 여성이 해서는 안 되는 규제를 ‘여인금제(女人禁制)’라고 했다. 현재에도 유지되고 있는 여러 가지의 금제가 있다. 스모의 도효(土俵)에는 여자가 들어갈 수가 없고, 기온마즈리(祇園祭)의 아마보코(山鉦)에는 여성이 올라 갈 수 없다.(최근 부분 해금) 또한 신사의 제사를 주관할 수 없고, 터널 개통식 참가, 술 주소, 이시가미신사(石上神社) 출입금지 등) 전통사회에서나 볼 수 있는 여성금지나 제한 같은 것들이 여전히 잔존하고 있다. 특히 일본인들은 높고 험한 산에 신령이 산다는 의식이 오래전부터 있었고, 그러한 영험있는 영산에 여성들의 출입을 엄격하게 막았다.

지금까지의 연구는 여인금제의 근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금제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를 찾는 것으로 그 근원을 대개 계가레(穢れ) 의식³⁾과 불교의 계율⁴⁾에 의거한 여성관⁵⁾ 등에서 찾고 있다. 그러한 의식들은 점차 확대 재생산되어 여성은 부정한 존재이고 그런 부정한 존재들은 신성한 곳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결정론을 만들었다고 주장한다. 근대적 의식에서 그것은 남녀차별의식이라는 것을 주장⁶⁾한다. 우시아마(牛山佳幸: 2001)는 불교 이전에는 여인금제가 없었다고 하면서 문헌 속에서 여인금제 시작을 헤이안 시대에서 찾고 있다.⁷⁾

본고에서는 근원적인 문제를 넘어서 현재에도 여인금제가 유지되고 있는 오미네산(大峰山)을 중심으로 해금을 반대하는 측의 주장을 재고 해 보고자 한다. 해금운동이 일어날 때마다 세상의 이목을 끌어 ‘여인금제’의 근본이유가 어디 있는가를 묻는 계기는 만들었지만 건설적인 해답을 찾지는 못 했었다. 2004년 기이반도가 유네스코에 등재된 것을 계기로 오미네산의 여인금제에 대한 찬반 여론은 다시 일어났으나 현재까지 별다른 변화는 없다.

푸코는 인간이 만든 역사와 사회문화가 하나의 권력이 된다고 했다.⁸⁾ 그 권력은 역사와

2) 源淳子(2005) 『女人禁制Q&A』開放出版者, pp.58-83

3) 감영희(2005) 「일본의 민속학적 생활의시과 여성 부정관」 『일본어문학』30집
 _____(2011) 「타타기(タタキ)로 보는 여신신앙과 금제사상」 『일본문화연구』40집

4) 감영희(2007) 「여인금제의 역사적 배경과 성역책정」 『일본어문학』38집
 _____(2008) 「고야산(高野山)의 여인금제」 『일본문화연구』26집

牛山佳幸(1996) 「女人禁制再論」 『山岳修験』17号

5) 熊本幸子(2004) 「高野山の結界と性差別についての一考察」 『人間文化論叢』七卷

6) 「大峰山女人禁制の解放を求める会」2003년 발족하여 현재도 활동 중.

7) 牛山佳幸(2001) 「平安時代の女人禁制文書について」 『上田女子短期大学紀要』25卷

8) 門馬幸夫(1997) 『差別と穢れの宗教研究』石田書院, p.4

사회문화를 만든 인간을 오히려 통제하기도 하고 때로는 차별하기도 하고 배제하기도 한다고 했다. 이것에 근거하여 오미네산의 여인금제 유지를 찬성하는 쪽의 논리를 재해석해 보고자 한다. 오미네산의 여인금제는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아직 여성을 배제하는 사상(事象)이다.

2. 슈겐도 행장(行場)으로서의 오미네산

일본인에게 산은 신이 있는 영지이고, 거기에는 쉽게 들어가서는 안 되는 성역이었다. 일본인은 산과 바다 저 건너편에 혼의 고향이 있다고 생각했다. 산은 신이 진좌(鎮坐)하고 있고, 영혼이 진좌하는 이상향이고, 이 세상의 풍요는 거기로부터 나온다고 생각했다. 또한 산악을 형성하는 수목과 용수자⁹⁾, 거대한 암석은 모두 신이 깃들어 있는 성스러운 존재로서 인식되어 왔다. 산에는 신의 힘이 작용하고 있다고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신의 이름을 붙이고, 금줄을 쳐서 성역화해 왔다.

산은 신의 영역인 동시에 사자의 영혼이 진좌하는 곳이기도 했다. 사람은 사후 영혼은 촌락에서 가까운 산으로 가, 자손의 공양을 받고, 세월이 지나면 조령(祖靈)에서 신령(神靈)으로 승화한다고 믿었다. 산은 이때 인간이 죽음을 통하여 조령으로 정화(淨化)되고, 신으로 승화해 갈 수 있는 성스러운 공간의 역할을 했다.¹⁰⁾ 즉 일본인에게 있어 산은 죽은 영혼이 돌아가는 타계(他界)이고, 신이 강림해 오는 영험한 장소이고, 산신(山神), 미쿠마리신(水分神)이 지배하는 생명의 원천이었다. 또한 신성한 곳이었다.¹¹⁾ 이러한 일본 고대의 산악신앙에 신도 불교, 도교, 음양도, 밀교 등과 혼합된 슈겐도(修驗道)가 8세기경에 성립한다.

슈겐도의 개조(開祖)는 엔노교자(役行者)이다. 그는 요시노(吉野)의 긴푸센(金峰山)에서 자오곤젠(藏王権現)을 세상에 드러나게 했다고 한다. 분노하는 모습을 하고 한p 발을 들고 있는 역동적인 모습의 자오곤젠은 밀교의 명왕에서 발전한 것이다. 기존의 부처로는 일본의 중생을 구제할 수 없기 때문에 석가, 천수관음, 미륵보살의 덕을 겸비하여 새롭게 출현했다고 한다. 슈겐도는 자오곤젠을 비롯해서 일반 불교나 신기신앙(神祇信仰)과도 다른 독특한 신격과 조직, 수행, 의례 등을 발전시켜 신불습합(神佛習合)의 가장 전형적인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슈겐도를 행하는 사람을 슈겐자(修驗者) 또는 교자(行者)라고 한다. 그들은 마을사람과 긴밀한 교류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산악에 들어가 수행하고 산을 내려오면 마을사람들에게

9) 高橋千劍破(2004) 『名山の日本史』河出書房新社, p.10

10) 久保田展弘『山の宗教』別冊太陽 日本のあるところ 111, p.20

11) Books Esoterica 第八号(1993) 『修驗道の本』学習研究者, p.16

주술적인 활동을 하여 병자를 고치거나, 기우 등에 영험을 나타내었다. 마을사람들은 이들 산악수행자가 산신의 힘을 획득했기 때문에 신통력을 나타낸다고 하여 두려워하기도 하고 존경하기도 했다.

오미네산(大峰山)은 슈겐자들이 수행하는 대표적인 장소이다. 오미네산은 요시노산에서 기이반도 남단을 향하여 이어져 있는 1,000미터급 고봉들을 지칭한다. 나라현(奈良県) 남부 요시노군(吉野郡)에 펼쳐진 기이산지 중부의 산조가다케(山上ヶ岳), 다이후젠다케(大普賢岳), 교자가에리다케(行者還岳), 핫교다케(八経岳), 사카가다케(釈迦ヶ岳) 등을 총칭한 것이지만 일반적으로 산조가다케(1719m)만 지칭해서 오미네산라고 부른다.¹²⁾ 현재 여기만 여인금제 구역이다.

산조가다케의 바깥 행장은 신참수행자 중심적인 행장이다. 여기에는 아부라고보시(油こぼし), 종괘암(鐘掛岩), 오카메석(お亀石) 등이 있으며 대표적인 행장은 니시노 노조키(西の覗)이다. 안쪽 행장에는 아리노 도와타리(蟻の戸渡り), 태내들어가기(胎内潜り) 등이 있다.¹³⁾

3. 오미네산 여인금제와 해금운동 역사

영산에 대한 일본인들의 신앙적인 태도로 인하여 명산이라 불리는 산 대부분은 여성들이 들어 갈 수 없었다. 오미네산 또한 슈겐도라는 산악종교가 생긴 이래 여인금제구역이었고, 여성의 참배나 수행을 거부하고, 경계선에 여인결계석을 세웠다.

여인금제에 관한 문헌상 가장 오래된 기록은 중국 후주(後周)의 승려 의초가 지었다는 『의 초육첩(義楚六帖)』이다. 여기에 의하면 이미 헤이안 시대부터 오미네산은 여성이 출입할 수 없는 영산이었다. 그리고 그 전설상의 근거는 엔노교자가 오미네산 중턱에서 모친과 이별하여 산으로 들어가 수행했다는 것에 의거한다.

메이지 정부는 새로운 체제에 맞는 사상적인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1868년 3월 신불분리령을 포고한다. 이 령으로 인해 오랫동안 습합 되어 있던 신도와 불교는 분리되고, 사원에서는 불교적인 색채가 제거된다. 또한 신도와 불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던 슈겐도도 1872년 9월 15일에 금지된다. 그 보다 조금 앞서 1872년 3월 27일에는 여인금제 해제령¹⁴⁾이 나온다. 이

12) 久保田展弘, p.50

13) 田中利典 正木晃(2004) 『はじめての修験道』春秋社, pp.165-166

14) 太政官 布告98號

神社佛閣ノ地ニハ女人結界之場所有之候処、自今被廢止候案、登山參詣等可為勝手ノ事

여인금제 해제령은 1872년 3월 10일부터 개최될 예정이었던 박람회(박람회)에 여성을 포함한 외국인 내빈을 초대하게 되고, 근처 영산방문이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 의거한 것으로 여인금제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 내린 것이 아니다. 1872년 4월 25일 정부는 승려의 육식과 결혼, 축발, 법요 이외의 속복 착용을 허용¹⁵⁾했는데 각지의 강한 반발이 나오자 1878년 2월 2일 포고에서 1872년 4월 포고에 관한 것은 각 종파에 일임한다고 전달했다. 그 결과 여인금제 폐지 존속은 각 종파에서 규정할 수 있다고 해석되었고, 일부에서는 여인금제를 존속시켰고, 포고는 여인금제를 용인한다고 생각했다.¹⁶⁾

현재 대부분의 산에는 해금령으로 개방이 되었지만 전면 금지가 되어 있는 곳은 요시노의 오미네산과 오카야마의 우시로야마(後山)이다. 하지만 우시로야마는 지명도가 높지 않아 전면금지에도 불구하고 세인의 이목을 끌고 있지 않다.

신불분리령의 영향과 사회변동으로 오미네산에서도 해금운동이 없지 않았다. 1873년 긴푸산지(金峰山寺)를 여성들에게 개방하려고 할 때 같이 하려고 했었고, 1926년 7월 3일 도로가와(洞川) 청년 처녀회에서도 해금 운동을 했었다. 1936년 2월 1일 오미네산 일대가 요시노구마노(吉野熊野)국립공원으로 지정받자 해금 움직임이 공론화 되었다. 도로가와 지역진흥을 꾀하여 여인금제 해제를 결의하고 5월 도아케(戸開け)식에 맞춰 실행한다는 기사가 나가자(1936. 2. 25. 『朝日新聞』) 앓코가 놀라서 나라현청에 나가서 도로쓰지(洞土)에서 위쪽은 금지 유지를 진정했다. 또한 지쿠린인(竹林院)에 고지원(護持院), 지역신도대표 앓코대표, 요시노 도로가와 구위원이 모여 회의를 가져, 관계자가 일치단결하여 영원히 여인금제를 지킬 것을 합의했다. 결의안이 현청 지사에게 전달되고, 1936년 4월 12일에 ‘오미네산 각 관계자 협의 산규(大峰山各關係者協議山規)’가 정해져 여인금제는 공식적인 결정사항이 되었다.¹⁷⁾ 2000년 엔노교자 입적 1300년을 기점으로 종단측에서 해금을 하려고 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신자단체와 지역주민의 반대로 해금되지 못했다.

4. 오미네산 여인금제 전통의 재해석

현재 오미네산 여인금제에 대한 해금을 반대하는 측은 크게 세 부류로 나눌 수가 있다. 종단과 신자집단인 코(講), 슈겐자를 위한 전통숙박지인 도로가와(洞川) 지역주민이다. 그들의

15) 太政官布告 133호 ‘僧侶の肉食妻帯蓄髮勝手之事’

16) 鈴木正崇(2002) 『女人禁制』吉川弘文館, pp.9-10

17) 위의 책, pp.43-44

해금반대 근본 요체는 전통유지이다.

4.1 교단

슈겐도의 종단은 신불불리령, 1872년 슈겐도 폐지령에 의해 본산파(本山派)는 천태종으로, 당산파(当山派)는 진언종으로 소속되어 불교에 포섭되었다가 1945년 종교법인령 및 1951년 종교법인법 시행으로 본산슈겐종(本山修験宗), 진언종다이교파(眞言宗醍醐派), 요시노킨푸산슈겐본종(吉野金峰山修験本宗)으로 나누어져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산조가다케에는 오미네산지(大峰山寺)가 있다. 여기는 5개의 호지원(護持院)에 의해서 1년 씩 윤번제로 관리 운영되고 있다. 5개의 호지원(護持院)은 요시노(吉野)측의 도난인(東南院) 기조인(喜藏院) 사쿠라모토보(櫻本坊) 지쿠린인(竹林院)과 도로가와(洞川)側の 류센지(龍泉寺)을 가리킨다.

각각의 사원은 슈겐도교단인 본산슈겐종 쇼고인(聖護院)에 기조인(喜藏院), 진언종 다이교파(醍醐派) 다이고지(醍醐寺)에 류센지, 킨푸센지(金峰山修験本宗金峰山寺)에 도난인, 사쿠라모토보가 친자(親子)관계로 연결되어 있다. 지쿠린인(竹林院)은 어느 곳에도 연결되어 있지 않은 단일사원이다.

교단측은 교토 박람회(1872) 개최를 계기로 고야산을 해금하였고, 뒤이어 히에이산을 개방하였다. 그 후 각지의 영산은 여성들에게 개방되었다. 현재는 산조가다케만 전통유지라는 이유로 여인금제의 전통을 유지하고 있다.

전통유지라고 하지만 시대적인 상황에 맞춰 변해가는 모습이 교단 측에 보인다.

류센지는 엔노교자가 수행할 때 도로가와에 내려와 샘을 발견하고 그 주변에 팔대용왕을 제사지냈다는 전승을 가지고 있는 오래된 사찰이다. 원래는 도로가와와 단나테라(檀那寺)인데 (현재도 그 기능을 유지) 팔대용왕 신자를 핵으로 용왕코를 주제로 하여 산정 참배모임을 조직화하여 세력을 확대했다. 1886년 5월이 이후 호지원에 가담하여 지위를 확립하였고, 1910년 6월 진언종 다이교사의 총본산인 삼보원의 말사가 되어 당산파 슈겐에 포섭되었다. 이 류센지는 1960년까지 여인금제의 절이었다.

그런데 1946년 3월 31일 도로가와에 대화재가 발생하여 절과 마을 대부분이 소실되었다. 재건에 있어서 단가(檀家)와 지방 신도로부터 기금을 받았고, 도로가와 여성과 코의 여성들로부터도 협력을 받았다. 그리고 단가의 반 이상이 여성이고, 재건의 협력에 대한 노고에 대한 보답의 의미로 낙성식 때 경내를 여성에게 개방하지는 목소리가 있었다.

단가이면서 조상제사나 법회에 참석 못 하는 것과 절 앞을 지나갈 수 없는 통행의 불편함,

용왕코에 여성신도 수가 증가했다는 등등의 이유도 덧붙여져 1960년 7월 10일부터 해금되었다. 이 류센지 경내 해금에는 또 다른 실리적인 이유가 있었다. 요시노에서는 도난인(金峰山修験本宗)의 초대관장인 고조(五條寛澄)가 1950년 11월 19일 산조가다케 뒤쪽 수련장을 본 떠 자오당 서쪽 지옥계곡에 여인 수련도장을 열었다. 이것에 대하여 여성 수행자를 끌어들이기 위하여 도로가와와 류센지는 ‘여인대봉(女人大峰)’ 설정을 생각했다. 이나무라가다케(稲村ヶ岳)를 여성에게 개방하려는 계획이 진행되고, 류센지가 여성행자들에게 선달(先達)면허증을 주기로 결정했는데 여성들이 선달면허증을 받으려면 경내에 들어와야 했으므로, 류센지 입장에서는 경내를 개방하지 않을 수 없었다.¹⁸⁾ 이렇게 긴 역사를 가진 류센지도 신도들의 요구에 여인금제라는 오랜 전통을 양보했다.

서기 2000년은 슈겐도 개조인 엔노교자의 입적 1,300년이 되는 해였다. 이것을 기념하여 삼본산(三本山)이 산조가다케의 여성금제를 해금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여성신도 수의 증가와 교단 내의 변화 등등으로 슈겐도도 변화의 기점에 서 있으므로 여성들의 직접참여의 길을 열어야 한다고 긴푸센지 관계자가 발언을 했다. 그 내용을 인용하면 아래와 같다.

작년(1999)에, 대원기년(大遠忌年)를 계기로 금제해제 방침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중략) 특히 각 교단 내에서 여성 진출이 눈부시고, 본종은 전 교시수 중에 약 반수를 여성이 차지하는 것 외에 오쿠가케유기 등의 수회회에 여성 참가가 증대하는 등 지금까지 슈겐 모습과 다른 형태로 발전 확대하고 있는 상태이다. (중략) 여성들의 참여는 교단의 활동이나 사원의 포교상 중요함으로, 다음 대의 슈겐도 창조는 바로 여기에 있다. (중략) 신앙 앞에는 남녀의 구별이 없고, 지금까지도 간접적인 형태였지만 슈겐도는 항상 여성을 넓게 받아 들여왔다. 지금 여기에서 여성의 참여의 길을 열지 않으면 21세기 종교로서 절명할 지도 모른다.¹⁹⁾

昨年(1999年)大遠忌年をもって禁制解除の方針に沿って、大きく動きだしたのである。(中略)特に各教団内での女性の進出はめざましく、本宗は、全教師数のうち、約半数を女性が占めるほか、奥駈等の修行会にいける女性の直接参加の増大など、今までの修験のあり方とは違った形で、発展拡大している状況である (中略) 女性自身の自立は教団としての活躍や寺院の直接的教化の重要性を増すものであり、次代の修験道の創造は正にここにある。(中略) 信仰の前には男女の別はなく、今までも間接的な形ではあったが、常に修験道は女性を廣く受け入れてきたのであり、今ここに女性の直接参加の道を開かなければ、二十一世紀の宗教にとって命取りにさえなるのである。(田中利典、『修験道宗報』32号、金峰山修験本宗宗務庁、1998)

18) 鈴木正崇(2002), p.58

19) 大峰山開放会(2011) 『現代の女人禁制』開放出版者, p.29 재인용

또한 슈겐도 삼본산 중의 하나인 쇼고인(聖護院)의 승려 오카모토 다카미치(岡本孝道)는 남려는 대등하며, 화합해야 한다며 개방 취지를 다음과 같이 말했다.

불교전래 이전의 슈겐도도 여성이나 생리혈에 대하여 게가레(穢)라는 인식은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중략) 또한 주원심비법(柱源深秘法)이라 하는 작법 중에는 두 개의 유목(乳木)을 겹쳐 쥐고 주문을 외우면서 ‘적백이정제응골(赤白二鼎滲凝滑)라 생각했습니다. 적(赤) 상징되는 물기 있는 난자, 혈액, 양수와 백(白)으로 상징되는 정자, 정액과의 음양 교섭, 섞임이 생명을 낳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거기에는 성(性)은 성스러운 것이고, 경혈은 생명의 원천이며, 남려는 대등 그리고 화합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중략) 거기에서 여성은 하대하는 대상도 아니고, 죄 많은 비참한 존재도 아니었습니다.’²⁰⁾

仏教伝来以前の修験道も、女性があるいは経血がケガレであるという認識は持っていなかったと考えられるのです。(中略) 更に柱源深秘法といわれる作法の中では、二本の乳木を重ね合わせ呪をとこなえながら「赤白二鼎滲凝滑」と観念します。赤に象徴される水気である卵子、血液、羊水としろに象徴される精子、精液との陰陽両者の交歓、交わりが生命を生む、と観念するのです。そこでは、性は聖なるものであり、経血は生命の源であり、男女は対等そして和合するべきもの、とかんがえられています。(中略) そこでは女性は見下げる対象でもなく、罪深いあさましいものでもありませんでした。(岡本孝道、『本山修験』132号、聖護院門跡、1997)

다나카(田中利典)와 오카모토(岡本孝道)는 전통적인 사회가 변화하고, 시대가 요구한다면 전통도 바뀌어야 하며, 여성은 이전 사회에서는 게가레라는 의식에서 배제되는 경향이 강했으나 원래 종교적인 취지에서는 여성을 부정하다고 보지도 않았고, 하대의 대상이나 비참한 존재로 인식하지 않은 대등한 존재였다고 했다. 그러므로 21세기를 맞이하여 해금은 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 발언에 대하여 신자단체에서 강력하게 반대를 하자 교단측은 신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해금할 이유를 찾지 못하고 해금하지는 의도를 철회한다. 교단측으로서는 교단을 지원하는 코라는 신자단체들의 입김을 무시할 수 없었던 것이다.

류센지는 신자들의 요구에 의거하여 해금을 하였고, 엔노교자 입적 1,300년을 기념하여 산조가다케를 해금하려고 했을 때 교단은 신자들의 요구에 의해 해금 할 수 없었다. 즉 교단이 라고 하는 것은 신자, 즉 신자를 중심으로 하는 교세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신자단체에서 반대 하자 결국 교단의 주장은 꺾이고 만다.

20) 大峰山開放会(2011), p.31 재인용

4.2 신자단체 코(講)

근세말기부터 오미네산지(大峰山寺)에는 한카이얏코(阪堺役講) 불리는 신자단체가 만들어져 오미네산지를 관리하였다. 이러한 코(講)들은 고지인(護持院)과 적극적인 관계 속에 있다. 한카이얏코는 오사카(大阪)의 이와(岩), 고메이(光明), 산고(三郷), 교쿄(京橋)와 사카이(堺)의 도리케(鳥毛), 이즈쓰(井筒), 료쿄(兩郷), 고류(五流)를 말한다.

각각의 코는 몇 개의 지류(支流) 코(講)를 포섭하여 코스(講社) 연합을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얏코 소속의 코 대부분은 동업자 끼리나 동일 지역 내의 사람들로 구성된 도시 코이다. 한카이얏코는 오미네산지를 참배하는 교자코 중에서 가장 강력한 조직을 가지고 오미네산지 그 자체를 관리까지 하고 있다.

오미네산지는 요시노의 도난인, 기조인, 시쿠라모토보, 치쿠린인과 도로가와 측의 류센지라는 5개의 고지인의 대표, 요시노측, 도로가와측 지역신도대표 각 3인, 각 얏코에서 대표 1사람씩 8명 등의 특별 신도대표에 의해 운영된다. 그리고 오미네산지는 5월 3일 도아케(戸開), 9월 22일 도시메(戸閉)는 얏코 대표자가 당번의 고지인 주지부터 신도 대표들이 모인 가운데 본당의 열쇠를 받아, 개폐한다. 또 오미네산지의 참배자가 가장 깊게 신앙하는 비밀의 엔노교 자상 참배권은 얏코에게만 분배된다. 이처럼 얏코는 오미네산지 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현재 한카이얏코에서는 8개의 코가 순서대로 오미네산지의 당번을 서고 도아케와 도시메 때는 공동으로 행사를 주체하는 것 외에, 코의 임원들의 여행회, 회원의 경조사 등에도 참석하고 도시메 전에는 수입결산보고회에도 참석한다. 또한 각 얏코는 각각 오미네산지 호지원 더 나아가, 그것과 연결된 슈겐교단과도 긴밀한 관계를 가진다.²¹⁾

이러한 얏코들의 오미네산지 여인금제 해금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면 교단측과 마찬가지로 반대이기는 하지만 성격이 조금 다르다. 어떻게 보면 그들의 반대 입장이 전통유지라는 이유가 가장 걸맞다.

1960~70년대가 되면 일본에서는 지방의 과소한 현상이 나타나 지역사회의 일손부족 현상이 생겨난다. 이전에 여자가 할 수 없는, 해서는 안 되는 일도 시대의 상황에 따라 변하게 되었다. 도로가와 지역을 비롯하여 산을 주로 생업현장으로 하는 지역에서는 일손부족으로 산에 들어가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출입이 제한되어 있는 곳에 여성이 출입하는 것이 문제가 되었다. 또한 1965년 요시노 지역이 국립공원지정과 관광의 경제성에 대한 지역민의 자각

21) 宮家準(1988) 「大峰山寺の講と教団」 『大峰修験道の研究』 佼成出版社, p.186

등등으로 금제구역을 축소하지는 의견이 지역에서 나오게 되었다. 1969년 10월 29일 요시노 지쿠린인에서 개최된 오미네산지 총회에서 토론한 결과 고지원과 지역신도대표는 개방을 찬성했지만 야코대표인 특별신도대표는 난색을 표하여 보류(毎日新聞 1969년 10월31일) 되었다. 다수의 신도를 가지고 있는 오사카와 사카이의 야코는 큰 세력이고, 오미산에 대한 강한 애착심과 신앙심을 가지고 있다. 이 사람들의 반대표명과 태도 유보는 여인금제는 엔노교자가 오미네산 개산 때부터 결정되었던 근본질서를 뒤집는 것에 대한 주저함이 있었다. 결국 1970년 2월 6일 협의에 의해서 야코가 양보하여 일부 개방을 승인하였다.²²⁾

최근에 있었던 예를 들면 2000년도가 엔노교자 입적 1,300년에 해당하는 해였다. 교단에서는 여성신도의 수도 늘어가고 있고, 시대의 조류에 따라 인권문제도 있어 교단 측에서 개방의 목소리를 먼저 내었다.(3.1 참고) 이 소식을 접한 코에서 맹렬하게 반대를 했다.

야코를 구성하는 신자들은 옛날의 재가수련자와 같은 이미지를 스스로 가지고 있다고 믿고 있다. 오미네산지와 관련된 행사나, 직접 오미네산지에서의 수련도 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전통의 의미는 다른 집단보다 강하다고 볼 수 있다.

4.3 전통숙박지 도로가와(洞川)

도로가와(吉野郡天川村洞川)는 산조가다케로 가는 등산로 입구에 있는 마을이다. 도로가와 의 주민들은 본산과, 당산과의 수허교단으로부터 오미네산 경호담당으로서 오자사(小笹)의 숙소와 등산로 찾집 관리, 기도판(祈禱板札), 다라니스케라는 위장약 판매 권리를 위임 받았다. 전통적으로 도로가와 의 경제는 발농사 조금과 오미네산 참배객을 대상으로 숙박, 안내, 위장 약 판매 등에 의존했다. 근세 중기 이후 서민들에게도 등산은 인기가 있었고 그것은 신자집단 인 코를 활성화시켜 도로가와 지역에 여관이 증가하게 되었다. 등산로의 찾집도 중요한 재원이었다.

(1) 산조가다케는 1874년 6월에 산상자오당(山上藏王堂)은 곤고진사(金剛神社) 오쿠미야(奥の宮)가 되었다. 환속하여 신관이 된 요시노산의 승려가 여기에 봉사했다. 이때 산상에 있던 6칸의 숙소도 신관야시키(=신관숙소)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산조가다케에서는 그때까지 불사였던 본당이 곤고진사 오쿠미야로 바뀌고 나서부터 참배자가 격감했다. 그 쇠락을 극복하기 위해서 산조가다케에 불당을 건립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 도로가와와 요시노에서는

22) 鈴木正崇(2002), p.40

1875년 4월 29일에 요시노산과 도로가와의 부소장 가네코(兼小) 전 총대(総代)의 연명으로 산조가다케 하나바다케에 교자(行者)사당을 이전하여 산상장왕당에 있었던 비밀의 엔노교자 상과 불상을 모시고 싶다는 탄원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여름에 들어가기 전에 이전을 완료하고 교자당(行者堂)이라고 불렀다. 이 당의 운영은 장식사(葬式寺)였던 이유로 환속하지 않았던 요시노산의 켄푸쿠지(善福寺)와 도로가와의 류센지가 맡았다. 요시노와 도로가와는 산조가다케의 등배자를 한사람이라도 더 늘리려고 하는 점에서는 이해가 일치하였다. 1885년 6월 요시노군장 다마오키(玉置高良)의 조정으로 오쿠미야를 불당으로 복귀하고 행자당의 불상을 옮겨 요시노와 도로가와가 공동으로 관리 운영한다는 조건으로 복귀운동을 전개하여 1886년 5월에 오쿠미야는 산상본당으로서 부활하게 되었다.²³⁾

(2) 도로가와 교자마츠리(行者祭り)는 1953년 도로가와 관광협회가 도로가와에 전해지는 교자코(行者講)와 오니오도리(鬼踊) 등을 모체로 엔노교자에 감사하는 취지로 만들어낸 새로운 마츠리이다. 그 근저에는 엔노교자에 대한 도로가와 주민의 신앙이 있지만 그것과 더불어 관광객을 유치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교자 마츠리는 이즈(伊豆)에 유배되었던 엔노교자가 사면되어 오미네산으로 돌아 오자 그의 제자인 고키(後鬼)가 기뻐하면서 맞이한 고사의 의 자손인 도로가와 주민이 재현하는 것이다. 마츠리는 8월 2일과 3일에 열린다.²⁴⁾

(3) 산조가다케 서쪽에 있는 이나무라가다케(稲村ヶ岳)는 현재 여성이 들어갈 수 있는 산봉우리다. 여기는 명확하게 여인금제라고 명명된 지역은 아니었지만 산조가다케와 이어지는 봉우리여서 여성은 올라갈 수 없었다.

1940년 나라현(奈良県) 교육계 유력자인 오쿠무라 쓰루마츠(奥村鶴松)가 사쿠라이 고녀(櫻井高女) 학생을 데리고 올라간 이후 느슨해졌다. 요시노에서는 도난인(金峰山修験本宗)의 초대관장인 고조(五條寛澄)가 1950년 11월 19일 산조가다케 뒤쪽에 있는 도량을 본 떠 자오당(蔵王堂) 서쪽 지옥계곡에 여인행장을 열었다. 이것에 대항하여 여성 수행자를 끌어들이기 위하여 도로가와 주민과 류센지는 「여인대봉(女人大峰)」 설정을 생각했다. 1960년 류센지 경내 개방과 동시에 이나무라가다케 여인금제를 정식으로 풀고 등배(登拜)하는 여인 행자들에게 류센지가 「이나무라가다케 여인도장수행(稲村ヶ岳女人道場修行)」이라는 여성 센다츠(先達) 면허장을 주게 되었다. 여기에 대해서는 코의 반대는 없었다고 한다.

23) 宮家準(1988), pp.240-241

24) 위의 책, p.256

(4) 도로가와는 전통적으로 오미네산 등배자를 상대로 하는 여관업 외에 요시노스기(吉野杉)와 히노키(檜)를 주체로 하는 임업에 의지하며 생활하고 있었다. 1960~70년대 고도경제성장 시대에 지방의 과소화 과정 속에 일손 부족이 생기자 각 지역마다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고 있었다. 1965년 국립공원으로 도로가와가가 편입된 것은, 도로가와가 오미네산으로 가는 등산 기지이고, 두 개의 종류굴(面不動, 五代松), 요시노스기 산지로 천연림이 있다는 것을 호소하여 얻은 결과이다. 시대의 변화와 일상생활에서의 요청, 관광에 의한 지역진흥을 위하여 금제구가 축소되었다.²⁵⁾ 엔노교자의 모친이 기거했다는 모공당(母公堂) 위로는 여인금제였는데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모공당에서 2km 더 올라간 지점으로 여인금제 구역이 변경되었다. 1970년 5월 2일부터 여인결계지점을 도로가와에서는 청정대교(淸淨大橋), 요시노에서는 고반세키(五番関)로 결정하였다.

도로가와 지역과 여인금제와 관련해서는 교단과 코와는 달리 직접적으로 생존권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선조대대로 행장을 지키도록 명을 받은 이래 1,300년에 걸쳐 행장을 지켜왔고, 그것이 지금까지 지역 생활을 보장해 주었다. 그들이(코와 슈젠자) 반대하는 이상 우리도 반대할 수밖에 없다²⁶⁾라고 도로가와 지역민은 말한다.

(1)의 산상본당이 신관의 관리로 넘어가면서 급격하게 줄어드는 신자 수에서 위기의식을 느낀 것은 도로가와와 요시노의 지역민이었다. (2)의 교자마츠리는 새롭게 만든 마츠리이다. 그때까지 없었던 것을 기획하여 만들어 관광객 유치 의도가 엿보인다. 물론 전승이나 역사성에 의거하여 만들어진 것이긴 하지만 전통이란 상황에 맞게 얼마든지 만들어 질 수 있다는 예로서 볼 수 있다. (3)에서 ‘여성대봉’을 설치하려 한 것은 이나무라가다케 해금은 전후 거둬지는 여인결계돌과 시도에 대한 지역의 대응전략책이기도 했지만 요시노 쪽으로 여성 수행자들을 뺏길 것을 염려하여 도로가와 주민들의 지구책이었다. (4)는 (2)의 의도와 상통한 것인데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되면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효과적이라는 것을 주민들은 인지하였고,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지역민이 적극 활동을 해서 얻어 낸 결과이다.

이상과 같이 도로가와 지역민은 조상대대로 오미네산을 오르는 행자들의 숙소와 식사를 제공하면서 생활해 왔기 때문에 그 전통을 지키며 사는 것이라고 도로가와 지역민이 주장하지만 좀 더 안을 들여다 보면 생활권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전통으로 지정된 구역이 축소되기도 하고, 때로는 전통이 새로 만들어지기도 한다.

25) 鈴木正崇(2002), p.40

26) 宮家準(1988), p.394

5. 마치며

슈겐도라는 신악종교를 토대로 형성된 세 집단은 산의 신성함과 자신들의 종교적인 활동을 위해, 전통적인 계가레관과 불교적인 여성 멸시관과 함께 모공당(母公堂)의 전설과 산의 여신의 노여움을 사면 황액인 온다는 것을 이용하여 여성들을 산에 들어오지 못 하게 하였다.

민속학자 야나기타 구니오(柳田国男)는 ‘전통이란 모호하다.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이라도 장래 인정될지 안 될지 모른다. 따라서 전통이란 그때그때 생기는 것이고 무엇이 전통인가라고 하는 것은 극히 모호하다.’²⁷⁾라고 말했듯 전통은 각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것이다.

여인금제라는 전통을 만드는데 중심에 있었던 남성들은 그 문화를 하나의 권력으로서 기득권을 버리지 않으면서도 편의에 따라서는 바뀌가고 있다. 세인의 관심으로 시끄러워지는 전면에서는 전통을 앞세우지만 실제 교단은 신자 없이 존속 할 수 없으므로 신자집단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고, 수행자들에게 숙박을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와 생활기반을 유지해 왔던 도로가와 지역에서도 지금까지 해 왔던 일이기 때문에 따를 수 밖에 없다고 하지만 문제가 있을 때마다 전통이라는 이름 뒤에 가려진 경제권이 더 중시되었다. 즉 오미네산의 수행자들의 전통문화는 남성이 주체자가 되고, 주체자들은 전통이라는 권력을 앞세워 그들의 감추어진 이익을 추구하고 있었던 것이 된다.

1981년 9월 5일 젠키(前鬼)에서 신센간쵸(深山灌頂) 행사가 있었다. 사상 처음으로 여성신도 수법(受法)이 허락되었고, 수법자 408명 중에 여성이 65명이었다고 한다. 심선관정은 혈맥계승과 법류전수의 의미에서 종과 최대의 행사이다. 젠키는 산조가다케와 약간 거리가 있기는 하지만 같은 요시노 국립공원에 안에 있는 지역이다. 슈겐자의 행장, 도량이라는 같은 가치를 지닌 다른 곳에서는 여성에게 개방을 넘어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 내는 상황에서 산조가다케만 전통유지한다는 의미는 그다지 크지 않다. 전통유지라는 명분을 앞세우면서도 전통에 위배되는 변화와 결정들이 산조가다케를 둘러싼 여러 그룹에서 일어나고 있고, 그것은 전통유지라는 말을 퇴색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參考文獻】

김영희(2007) 「여인금제의 역사적 배경과 성역책정」 『일본어문학』 38집

27) 源淳子(2005) 『女人禁制Q&A』 開放出版社, p.40

- _____ (2008) 「고야산의 여인금제」 『일본문화연구』 26집
- _____ (2005) 「일본의 민속학적 생활의식과 여성 부정관」 『일본어문학』 30집
- _____ (2011) 「마타기(マタギ)로 보는 여신신앙과 금제사상」 『일본문화연구』 40집
- 牛山佳幸(1996) 「女人禁制再論」 『山岳修験』 17号
- _____ (2001) 「平安時代の女人禁制文書について」 『上田女子短期大学紀要』 25卷
- 宮家準(1988) 『大峰修験道の研究』 佼成出版社 p.186, pp.204-241, p.256, p.394
- Books Esoterica 第八号(1993) 『修験道の本』 学習研究社, p.16
- 田中利典 正木晃(2004) 『はじめての修験道』 春秋社, pp.165-166
- 高橋千劔破(2004) 『名山の日本史』 河出書房新社, p.10
- 別冊太陽(2000) 『日本のこころ』 111, 『山の宗教』 p.20
- 大峰山開放会(2011) 『現代の女人禁制』 開放出版者, p.29, p.31
- 源淳子(2005) 『女人禁制Q&A』 開放出版者, p.40, pp.58-83
- 鈴木正宗(2002) 『女人禁制』 吉川弘文館, pp.9-10, p.40, p.58
- 門馬幸夫(1997) 『差別と穢れの宗教研究—権力としての知』 石田書院, p.4

논문투고일 : 2012년 06월 10일
심사개시일 : 2012년 06월 20일
1차 수정일 : 2012년 07월 10일
2차 수정일 : 2012년 07월 20일
게재확정일 : 2012년 07월 25일

<要旨>

오미네산 여인금제 전통의 현대적 의미

슈겐도는 일본의 산악종교이다. 슈겐도를 실천하는 야마부시(山伏)들은 성스럽고 영험한 산에 들어가 수행하였다. 야마부시들이 활동하는 산에는 슈겐도 창립시기부터 여성금제였다. 하지만 시대의 추이에 따라 대부분의 산은 해금이 되었지만 오미네산은 아직도 여인금제 구역이다. 해금에 반대하는 측은 슈겐도 종단과 신자 집단인 코, 그리고 숙박자인 도로가와 주민들이다. 반대하는 이유는 3그룹 모두 ‘전통유지’이다.

종단 측은 입장엔 엔노교자 입적 1300년을 기념하여 시대의 추이에 따라 해금하고자 하였으나 야코의 관련자들의 맹반대로 철회하였다. 야코를 구성하는 신자들은 옛날의 재가수련자와 같은 이미지를 스스로 가지고 있다고 믿고 있다. 오미네산지와 관련된 행사나, 직접 오미네산지에서의 수련도 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전통의 의미는 다른 집단보다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야마부시를 상대로 숙박, 식사, 위장약 등의 판매에 의거해서 생활을 유지해 왔던 도로가와외의 지역민은 해금이 되면 찾아오는 손님이 적을 것이라는 지극히 현실적인 이유로 전통을 주장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현재에도 여인금제가 유지되고 있는 오미네산을 중심으로 해금을 반대하는 측(3그룹)의 주장을 푸코의 문화권력으로 재고해 보았다. 문화권력은 그 문화를 만든 인간을 오히려 통제하거나 차별, 배제하는 것을 말한다.

종단은 해금으로 인하여 신자집단과의 갈등이나 신자 이탈을 우려하고 있고, 야코는 야마부시들의 위상이 흔들릴 것이라는 것, 도로가와 지역민은 생활고를 염려한다. 그래서 그들은 전통이라는 권력으로 해금을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전통유지라고 하면서도 교단과 코, 도로가와에서는 편의에 따라 시류에 따라 여인금제 구역을 폐지하기도 하고, 축소하였다. 즉 오미네산의 수행자들의 전통문화는 남성이 주체가 되고, 주체자들은 전통이라는 권력을 앞세워 그들의 감추어진 권익을 추구하고 있었던 것이 된다.

The modern meaning of NO WOMEN TRADITION in Mt. Omine

Sugendo is a Japanese mountainous religion. The Yamabusi people believing in and practicing Sugendo went into the scared and miraculous mountain to practice it. The mountains where the Yamabusi people are active have been closed for women since foundation of Sugendo. However, with the change of times, the ban on most of the mountains was lifted except Mt.Omine. The people who oppose to lifting the ban are the Sugendo religious order, YaKo, a group of believers, and Dorogawa residents who live in the stopping place. The reason of objection by all three groups was ‘Preserving tradition’

The order tried to lift the ban celebrating 1300th year since Enogyoja passed away with the change of times but had to withdraw the plan due to fierce objection by the Yako people. The believers constituting Yako believe that they themselves have a image of trainers who haven’t join the Sangha. Since the Yako people attend ceremonies related to Mt.Omine and practice training in Mt.Omine, the meaning of the tradition is much stronger than that of others. Dorogawa residents who have made a living by providing accommodations and meal, and selling stomach medicines make a practical argument that the number of visitors will decrease once the ban is lifted.

The article reconsidered the arguments by the three opposing groups focusing on Mt.Omine which is still closed for women based on the Foucault’s cultural power. The cultural power means to ironically control, discriminate or exclude humans who themselves made the culture.

The order concerns that there might be conflicts between a group of believers and the believers might leave the order, Yako fears that their status might fell greatly and Dorogawa residents worry about suffering from the hardships of life if the ban is lifted. All of them, therefore, oppose to lifting the ban in the name of tradition. But indeed the three groups have abolished or reduced the size of closed area to their convenience and the times. In other words, the main force of the cultural tradition is males and they have been pursuing profits taking advantage of the powerful tradition.